

‘외국인 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농성장에서 만난 이주노동자 아웅틴툰씨

단물 다 빼먹었으니 이제 나가라구?

착취와 인권유린에도 그들이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이유

“벌써 7명이 죽었어요. 많은 빚을 지며 어떻게 이곳에 왔는데, 어떤 일이라도 마다 않고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나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아요.”



불법체류자 아웅틴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28일(금) 서울시장에서 멀리 않은 곳에 위치한 성공회 대성당에서 만난 아웅틴툰(29세)씨는 눈이 참 맑은 사람이었다. 멀리 미얀마에서 왔다는 그는 한국에 온지 벌써 9년 5개월이 된다고 한다. 자신을 연수생에서 불법체류자라는 발명자로 만든, 그리고 아내를 유인까지 했기며 자신을 착취했던 나라 한국이 이제는 그에게 떠나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현재 외국인노동자강제추방반대 농성장에서 14 일째 기거농성 중이다.

내가 한국에 온 이유

지난 1994년, 그는 미얀마의 한 대학에서 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다. 도대체 그는 왜 한국행을 택했을까?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되던 해 미얀마 정부는 대학들의 문을 닫았어요. 독재정권을 타도하라는 대학생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과거 우리나라의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을 떠올리게 해 흥분했다.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뭔가 배워서 우리나라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것이 그가 부모님을 설득해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였다. 갓 스물을 넘긴 나이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는 그는 현재 스물 아홉이다. 9년 5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겪은 한국은 그에게 어떤 곳이었을까?

연수생제도? 노예제도?

처음 연수생으로 한국 땅을 밟을 때 그는 한때 같은 상상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미얀마를 떠나기 전 자 신에게 한국을 소개했던 브로커의 한국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다. 브루커가 말한 ‘기술교육’은 밤낮이 없는 노동에 휴일조차 없는 착취였기 때문이었다. “저하고 같이 온 친구 중에 영어를 전공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기도 했다”는 그의 설명은 그가 당시 받았던 충격이 얼마정도인지 짐

작해 했다. 하지만 그보다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다고 한다.

“죽이라는 욕은 다 먹었어요. 항상 콘소리로 화를 내고 무시를 했어요. 전 그들에게 이미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 그는 한국에 2년만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조차 뜻대로 할 수 없었다. “일년 반쯤 지났을 때 근무 중에 사고를 당했어요. 다리에 철심을 박아야 하는 큰 사고였어요. 당시에 전 연수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이 됐어요. 안 해줄까봐...” 안타깝게도 그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회사 측은 산재보험을 약속했지만 확인결과 산재보험처리는 없었다. 그는 바지를 갈아올리며 철심을 박은 자리를 보여주면서 그 사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친구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했다.

“한국에 오기 위해서 대부분 브로커들에게 빚을 저요. 보통 600만2000에서 1000만원 정도 빚을 저요. 카카스텔에서 온 친구는 2000만원을 빚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빚을 40만원씩 월급을 받으면서 연수생 신분은 보장이요. 2년 안에 갚기만 불가능해요. 그 빚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 한국을 못 떠나는 거예요.” 거기다 그는 12개월을 일해도 12개월 치 월급을 다 받는 사람이 없다며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을 토로했다.

“발삿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월급을 안 줘요. 불법체류자라서 월급을 주지 않아도 신고를 못하

우리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지난 17일 강제추방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말을 했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것이 거짓말임을 강조했다. “제가 일하던 곳에 한국인들이 종종 왔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3일 이내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그런 일은 마치 외국인만 하는 것으로 전해져 버린 것 같아요. 30일 종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독일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는 독일과 한국이 다른 점은 독일은 3년 이 지나면 이민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강제추방을 한다는 점이라고 한다.

그는 한국 경제가 어려웠을 98년 IMF시절 고통을 분담했던 구성원이었으며 한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한 때 독일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즐겨워했던 이방인 아웅틴툰이었다.

우리가 더럽다고 위협하고 피했던 일을 도맡아 했던 그를, 그런 그를 한국은 ‘이젠 필요없으니 나가라’고 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oedae01@hanmail.net



이주노동자의 역사

100여년간의 착취와 인권유린 마침표는 강제출국

80년대 말 우리나라가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소위 3D업종(Dirty, Difficult, Dangerous)은 인력난에 부딪히게 됐다. 이때부터 관습적으로 입국하여 취업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서서히 늘기 시작했다. 1992년에는 이주 노동자 도입을 놓고 노동부와 통상 산업부간의 의견대립이 있었다. 노동부와 노동조합은 이주 노동자들의 값싼 임금으로 인해 한국 노동시장이 잠식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통상 산업부와 기업측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값싼 임금으로 생산되는 값싼 제품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찬성했다. 결국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1992년 4월부터 1994년 4월까지 6개월에 걸쳐 4회동안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취업사실만 확인되면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허가권을 부여했다.

1994년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요구하는 재해 노동자들의 46일간 농성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등록·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3년 소급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실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6개월씩 발급해 주던 체류허가권은 일방적으로 중단됐고, 5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도 시행됐다. 1995년 1월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철폐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대책회의가 결성됐으며 정부에서는 최저임금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등 연수생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1996년에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 법안이 마련됐고, 1997년에는 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은 농성에 돌입했으나 모든 법안은 국회에 입법 상정되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IMF로 인해 경제가 악화됐었던 1998년에는 이주 노동자의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출국하는 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출국을 위해 벌금 사면기간을 장기간 단행했다. 그리고 같은 해 취업연수생제도도 실시됐다. 1999년에는 해외동포의 국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출입국 관리법과 재외동포특별법을 제정했다. 차별적인 이 법안에 대해 재중 동포들의 항의가 진행됐으나 결국 법안 개정 약속은 얻어지지 못했다.

2000년에는 대통령의 재원으로 민주당에서 외국인 노동자 법안 추진을 위한 실무 기획단을 구성했으나 관련 법안 상정은 보류됐다. 또한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 기준법이 적용됐다. 2002년에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고용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등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입국자를 포함한 모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체류 신고 및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2003년 지난 10월 31일까지 합법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주 노동자의 경우 강제 출국해야 하는 현상에 처해 있다.

조혜민 기자 mutute84@hotmail.com



외대와 SK가 만났습니다!

2004년 3월, 새로운 사이버세상이 열립니다

2004학년도 사이버외국어대학교 학생 모집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03. 12. 08 ~ 2004. 01. 07	2004. 01. 19 ~ 2004. 02. 05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제출			동기유원 또는 방문 제출
합격자 발표	2004. 01. 12	2004. 02. 09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수강신청 기간	2004. 01. 12 ~ 2004. 01. 15	2004. 02. 09 ~ 2004. 02. 12	합격자 수강 신청
합격자 등록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04. 01. 05 ~ 2004. 02. 16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제출		동기유원 또는 방문 제출
수강신청 및 등록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구 분	일 정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04. 01. 08 ~ 2004. 02. 06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제출		동기유원 또는 방문 제출
합격자 발표	2004. 02. 13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수강신청 기간	2004. 02. 13 ~ 2004. 02. 16	합격자 수강신청
합격자 등록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사이버외국어대학교
www.culs.ac.kr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고용허가제 개정만이 해결책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의 근거는 지난 7월말 국회를 통과한 고용허가제에 있다. 이 법률에 기존 미등록노동자중에서 4년 미만 체류자만 합법화하고 4년 이상 체류자는 모두 출국시키라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4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를 묻는다면 뜻밖의 답변을 만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장기체류 노동자를 합법화했을 경우 그 노동자들이 이 나라에 정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안기 싫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더 열심히 일 해온 장기 체류 노동자들은 합리적인 이유로도 없게 내쫓기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들을 단속하거나 강제 출국 시킬 자격이 없다. 그 동안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미등록노동자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외국인력의 수와 허용업종과 허용사업장규모는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기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혀 없거나 외국인을 받아들일게 되면 내국인 노동자와 일자리를 다투거나 내국인노동자에 비하여 불평등이 낫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합법적인 노동자격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사회보장에 있어 배제됨은 물론이요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위에서 만약이라고 언급했지만 사실은 우리 나라가 딱 그 민의의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 정부는 20여 년에 달하는 긴 세월동안 '대체'로 일관해왔다. 겨우 7월에야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 그 동안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으로 이동하는 과정, 취업과정, 노동조건, 의료 등 거의 모든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에게 갈취당해 왔으며 차별 당해 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 정부는 줄곧 계산된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인권을 일깨우는 일에만 관여해 왔다. 그레놓고 이제 와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노동자들을 도입할 텐데 그 동안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어온 일해 노동자들은 모두 나가라고 요구하더니 어불성실이다. 그 이유 또한 '외국인의 정주'를 막겠다는 것이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한가지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정부 계획이 기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내국인끼리만 사이좋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해 왔던 숙련노동자들을 내보내고 우리들과 문화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노동자를 도입하려 한다는 점이다. 지금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를 내

“
기존 장기체류 노동자들
합법화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고용허가제를 개정해
노동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보내도 인력난은 일어나지 않으며, 반대로 한국인들의 일자리가 늘어 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고용주들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려는 거짓 선전일 뿐이다. 그렇게 말

하는 한편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단속을 유보하겠다는 일리가 안 맞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도 답답해하며 빠져 있는 듯 하다.

또한 정부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수십만의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라고 주장 이주노동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도움 없이는 지탱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기존 장기체류 노동자를 합법화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아직까 외국인이주노동자를 도입할려면 오히려 그 동안 일해온 공을 인정해서 최우선 합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4년이상 체류자들을 합법화 범주에서 배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전면 합법화가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정하여 기존 미등록 노동자에게 노동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란주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정혜국강

기고·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선생님 장경석(이)군

그들에게 한국어는 생존수단이자 취미

제가 든에서 활동한 지도 2년 반이나 되었습니다. 처음 든에서 들어 왔을 당시 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가질만한 물건과 막대한 초기비용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글을 쓰고 있으며, 물론 불법체류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 외적인 측면들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여러 매체들을 통해 한번쯤은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전체 하에 무거운 예기는 하지 않고 밝은 예기 위주로 이 글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든에서 제가 살고 있는 반은 중급 반입니다. 한국어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사 소통에 문제는 거의 없고 그 분들 중엔 의외로 보아, 한국 사람들과 발만 다르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참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그분들을 지극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딱딱한 이유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좀 더 잘 알기 위해, 저희들과 좀 더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 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어를 열심히 가지고 배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일 월드컵 때 저희들과 같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즐거워하기도 했고, 한국어 이기면 같이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학교 든의 한교과 학생들

같이 노래방에 가서 대중 가요를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그 분들에게 한국어는 생존 수단일 뿐만 아니라 취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쓸 때나 인터뷰를 할 때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분들에게 한국어를 써서 대화할 때 저희는 보람을 느끼며 그 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그 분들이 사회의 편견, 후대집, 열악한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한국생활을 즐기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할 때, 또 모국어 돌아가기도 한국 생활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며 꼭 그 바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고·문화방송 다큐 '아시아 아시아' PD 이민우

빛도 못갠채 상처만 입고 돌아가는 사람들

40대의 가장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곧 시집갈 나이가 된 딸 하나. 그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었지만 자신들마저 그가 살아온 삶을 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날 한국에 가면 일자리가있고 돈도 벌수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에는 한국을 아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70년대 중반의 한 건설현장에서 한국기업의 현지 고용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으로부터 들은 한국과 한국인에대한 지식, 그것이 한국에 대해 그가 알던 전부였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추운지, 그치는 물입니다. 그가 한때 오기 위해 진위를 갖기 위해 얼마나 오랜세월 힘들게 일해야하는지 그는 생각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살아야 할 거라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그는 사랑하는 딸의 지참금도 마련하고, 아이 생일이 된 큰아들은 멀리도 작은 아들들만큼은 끝까지 교육시킬수 있는 돈을 마련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의 꿈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힘든 일과 적응하기 힘든 낯선 생활환경 때문에 병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말도 제대로 안통하는 병원에가서 어쩌면 진찰을 받고 받아온 진료비참수가 그를 절망시키지만 않았어도...(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는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어떤 면으로 나올까 생각하면서 가족을 생각에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알지못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쓰러진 그를 병원으로 데려왔지만 그

는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다큐 '아시아 아시아'에서 방영되었던 인도인 '모한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유명을 달리한 지도 벌써 7개월이 넘었군요. 인도 '호사이크 푸르'에서 살고 있는 유족들의 최근소식을 알아짐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하루 가사를 격정하는 삶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서러워할 여유도 없이 급근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한창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한 정부의 강제 출국 조치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주검으로만 겨우 고향향을 맡은 '모한달' 씨의 비효율이 없었지만 그 들 대부분은 억울한 사연들을 간직한 채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오려고 진 빛도 다 갖지 못하고 몸과 마음에 상처만 입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외국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기위해 어떤 없는 희생과 허타리도 단속과 강제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만리라도 그들의 인권을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노동자를 보내고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로부터 우리는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존엄 경제구조를 가지고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는 국익차원에서라도 슬금히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또 다른 '모한달' 씨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관한 법률과 제도가 하루빨리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허울좋은 착취수단

Q1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국해야 하나?

A1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한 것이다. 1994년 도입되어 올해 10년째를 맞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의 기술을 배우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로 자립금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했다. 이들은 15~1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연·수·생·제·도·조·차·뿐·히·못·한·외·국·인·노·동·자·들·은·한·자·에·우·리·돈·1

천만원정도를 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여행비자로 한국에 들어온다. 국내에서 일을 시작하고 비자가 만료되면 이들은 자연스레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이들은 노동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해 컨테이너 박스 기숙사에서 열악한 구 환경에서 쫓겨온 임금 체불과 신체, 건강 해손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구직자들이 30일정도를 기피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한 사정을 알고 외국인 노동자도 충당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묵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정부가 각종 보험과 자녀교육비등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외국인 합법화를 꺼려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불법체류자는 합법적인 노동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다.

Q2 '외국인 노동자'가 청년들의 일자리 뺏는다?

A2 우리나라의 위와 같이 당시 실업률이 극도로 높았을 때에도 3D 업종의 산업체들은 일손이 부족했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제조업체들은 현재도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은 작은 임금에도 국내로 들어와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실업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김현지 기자

민중생존권 보장 전대기권 공동광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농산물

개방 입역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농민들.

정부의 손바·기업주의 인내 월 50만원 반년도 노동국폭으로

매도 당하는 나라.

대박없는 노점상 단속과 빈민 생존권 유인이 판치는 세상.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 운운하며 민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한철레 FTA체결 반대·노동탄압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故 제종철 여중생 범대위 상환실 부실장(폴란드어)과 87학번 죽음의 죽음에 대하여

“그가 없었다면 촛불 집회도 없었을 겁니다”

경찰의 석연치 않은 자살발표에 의혹 제기돼

“죽기는 삶에 있어질 수도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제종철 동지의 육신은 이 곳을 떠나지만 그의 정신과 믿음은 이 자리에 머물러가 우리와 함께 전진할 것이며, 우리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故 제종철 여중생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앞에서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이영대 지부장의 추모사 중

지난 20일 여중생 투쟁을 이끌었던 제종철 여중생 범대위 상환실 부실장이 의정부향로 위로에서 숨을 거뒀다.

故 제종철 범대위 부실장. 사람들은 그를 ‘민중의 빛’이라고 부른다.

2002년 여중생 범대위 상환실 부실장, 경기도 북부 여중생대책위 사무처장, 의정부청년의 준비위원장, 의정부청년문화학교 인턴교사 반장, 2003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도북부지역의 교섭위원(미조직위원), 모두 그의 이력이다. 단 하나의 이력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없고, 모두 민중을 위해 헌신한 것 뿐이다. 그가 목숨을 다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남겨진 가족들 곁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제종철,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세상에 알리

“월드컵 열기에 몰려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었던 미상인, 효순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자고 나선 사람이 제종철 상환실 부실장이었어.”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본 제종철 여중생 범대위 사무국장의 말이다. 그는 추석일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진주로 가지 않고

두 여중생의 장례식장으로 달려갈 정도로 미상인, 효순이 죽음에 가슴아파했다고 한다. 제 사무국장은 “그가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3000여 명의 아이와 있는 촛불집회도 없었을거예요”라고 고 없이 어떻게 촛불집회를 진행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에 사회운동의 씨앗을 뿌리다

제종철, 그는 살아 생전 두 여중생의 죽음을 추모하며 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의정부에서 천만농성을 진행했다. 또한 그는 의정부에서 ‘의정부 청년회’를 조직해 청년들을 의식화하고, 진보적 사회 운동을 주도했다고 한다. 제 사무국장은 “고인은 의정부에 ‘사회 운동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었다”며 그의 생전 활동을 기렸다.

늘 환하게 웃고 있던 모습이기 때문에 남아 제종철 사무국장은 “그는 성격이 매우 밝고 낙천적이어서 같이 일하는 동지들에게 화 한 번 내 본 적이 없어요. 일이 잘 안되니까, 의견 충돌이 있으면 늘 나서서 화해를 주도하는 사람도 그랬죠”라며 항상 환하게 웃는 모습의 그가 떠오른다고 한다. 제 사무국장은 “그는 정말 사람들의 사람이예요”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의 동료 중에서 카드뮴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런 동료가 가슴이 아프다고 남편과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그 빚을 갚아주었다고 한다. 반면 일을 할 때 그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고 한다. “고인은 하루에 2~3시간 자고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 제 사무국장은 전했다. 그러기에 고인이 가지고 있는 이력과 그 수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학생운동에 열의 다한 학생시절

그는 87년 우리 학교 폴란드어과에 입학해 89년 총학생회 간부 활동을 했다. 그의 학생시절을 함께한 권재승(사단이사)과 87지는 “종철이는 총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 학교 곳곳을 발로 뛰었다고 전해요. 얼마 전 편지와 함께 찾아왔던 용인배우러 수위이자제씨가 그를 기억하고 안부를 물을 정도였다고. 또한 그는 투부총련, 경인총련, 한총련 1기 간부 활동도 활발히 했다고 한다. “종철이가 하루는 한 총련 총비서를 한번도 본 적 없다고 하는 거예요.”

출범식 전날까지 잠도 못 자며 행사 준비를 하다가 정작 당일에는 잔디밭에 누워

공이 떨어진 거죠”라고 말하는 권씨는 그의 모

는 친구”라고 그를 칭하는 권재승씨는 “종철이

의 시신을 확인하려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종

철아, 알아~’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가 단순히

자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죽음에 많은 의혹 남아

‘민중의 빛’, ‘제보관’과 제종철 범대위 상

환실 부실장이었던 우리 열에 없다. 그의 생

일이기도 한 11월 20일, 다른 이들과 두 세

배로 열심히 생을 살았기 때문에 35살의 젊은

생애를 마친 것일까. 그의 마지막 죽음은 순탄

하지 않았다. 그가 목숨을 다한 11월 20일, 그

가 오후 5시부터 미 24시간 알 촛불 집회를 진

행하고 동지들과 함께 식사를 끝내고 헤어진

것은 11시였다. 11시 14분에 부인에게 전화를

한 그가 11시 51분경 전선에서 쉼없는 잠으로

발견됐다. 약 1시간 정도 그의 행적이 묘연

한 것이다. 이어 경찰이 정화한 사건 규명도

아들 고인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언론에

이를 보도해 버렸다. 그는 부인과 일상적 통화

를 하고 마지막으로 만난 동지에게도 “내일 노

동자 학교에서 꼭 만나자”고 약속을 할 정도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 그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은 ‘의부 총격에 의한 흉부 대동맥 파열’

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

고, 웃어 찡찡 웃는 곳도, 또한 가차의 밑 부

분과 지면의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경찰의

는 친구”라고 그를 칭하는 권재승씨는 “종철이

의 시신을 확인하려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종

철아, 알아~’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가 단순히

자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죽음에 많은 의혹 남아

‘민중의 빛’, ‘제보관’과 제종철 범대위 상

환실 부실장이었던 우리 열에 없다. 그의 생

일이기도 한 11월 20일, 다른 이들과 두 세

배로 열심히 생을 살았기 때문에 35살의 젊은

생애를 마친 것일까. 그의 마지막 죽음은 순탄

하지 않았다. 그가 목숨을 다한 11월 20일, 그

가 오후 5시부터 미 24시간 알 촛불 집회를 진

행하고 동지들과 함께 식사를 끝내고 헤어진

것은 11시였다. 11시 14분에 부인에게 전화를

한 그가 11시 51분경 전선에서 쉼없는 잠으로

발견됐다. 약 1시간 정도 그의 행적이 묘연

한 것이다. 이어 경찰이 정화한 사건 규명도

아들 고인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언론에

이를 보도해 버렸다. 그는 부인과 일상적 통화

를 하고 마지막으로 만난 동지에게도 “내일 노

동자 학교에서 꼭 만나자”고 약속을 할 정도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 그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은 ‘의부 총격에 의한 흉부 대동맥 파열’

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

고, 웃어 찡찡 웃는 곳도, 또한 가차의 밑 부

분과 지면의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경찰의

는 친구”라고 그를 칭하는 권재승씨는 “종철이

의 시신을 확인하려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종

철아, 알아~’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가 단순히

자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죽음에 많은 의혹 남아

‘민중의 빛’, ‘제보관’과 제종철 범대위 상

환실 부실장이었던 우리 열에 없다. 그의 생

일이기도 한 11월 20일, 다른 이들과 두 세

배로 열심히 생을 살았기 때문에 35살의 젊은

생애를 마친 것일까. 그의 마지막 죽음은 순탄

하지 않았다. 그가 목숨을 다한 11월 20일, 그

가 오후 5시부터 미 24시간 알 촛불 집회를 진

행하고 동지들과 함께 식사를 끝내고 헤어진

것은 11시였다. 11시 14분에 부인에게 전화를

한 그가 11시 51분경 전선에서 쉼없는 잠으로

발견됐다. 약 1시간 정도 그의 행적이 묘연

한 것이다. 이어 경찰이 정화한 사건 규명도

아들 고인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언론에

이를 보도해 버렸다. 그는 부인과 일상적 통화

를 하고 마지막으로 만난 동지에게도 “내일 노

동자 학교에서 꼭 만나자”고 약속을 할 정도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 그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은 ‘의부 총격에 의한 흉부 대동맥 파열’

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

고, 웃어 찡찡 웃는 곳도, 또한 가차의 밑 부

분과 지면의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경찰의

는 친구”라고 그를 칭하는 권재승씨는 “종철이

의 시신을 확인하려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종

철아, 알아~’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가 단순히

자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죽음에 많은 의혹 남아

‘민중의 빛’, ‘제보관’과 제종철 범대위 상

환실 부실장이었던 우리 열에 없다. 그의 생

일이기도 한 11월 20일, 다른 이들과 두 세

배로 열심히 생을 살았기 때문에 35살의 젊은

생애를 마친 것일까. 그의 마지막 죽음은 순탄

하지 않았다. 그가 목숨을 다한 11월 20일, 그

가 오후 5시부터 미 24시간 알 촛불 집회를 진

행하고 동지들과 함께 식사를 끝내고 헤어진

것은 11시였다. 11시 14분에 부인에게 전화를

한 그가 11시 51분경 전선에서 쉼없는 잠으로

발견됐다. 약 1시간 정도 그의 행적이 묘연

한 것이다. 이어 경찰이 정화한 사건 규명도

아들 고인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언론에

이를 보도해 버렸다. 그는 부인과 일상적 통화

를 하고 마지막으로 만난 동지에게도 “내일 노

동자 학교에서 꼭 만나자”고 약속을 할 정도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 그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은 ‘의부 총격에 의한 흉부 대동맥 파열’

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

고, 웃어 찡찡 웃는 곳도, 또한 가차의 밑 부

분과 지면의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경찰의

는 친구”라고 그를 칭하는 권재승씨는 “종철이

의 시신을 확인하려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종

철아, 알아~’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가 단순히

자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죽음에 많은 의혹 남아

‘민중의 빛’, ‘제보관’과 제종철 범대위 상

환실 부실장이었던 우리 열에 없다. 그의 생

일이기도 한 11월 20일, 다른 이들과 두 세

배로 열심히 생을 살았기 때문에 35살의 젊은

생애를 마친 것일까. 그의 마지막 죽음은 순탄

하지 않았다. 그가 목숨을 다한 11월 20일, 그

가 오후 5시부터 미 24시간 알 촛불 집회를 진

행하고 동지들과 함께 식사를 끝내고 헤어진

것은 11시였다. 11시 14분에 부인에게 전화를

한 그가 11시 51분경 전선에서 쉼없는 잠으로

발견됐다. 약 1시간 정도 그의 행적이 묘연

한 것이다. 이어 경찰이 정화한 사건 규명도

아들 고인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언론에

이를 보도해 버렸다. 그는 부인과 일상적 통화

를 하고 마지막으로 만난 동지에게도 “내일 노

동자 학교에서 꼭 만나자”고 약속을 할 정도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 그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은 ‘의부 총격에 의한 흉부 대동맥 파열’

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

고, 웃어 찡찡 웃는 곳도, 또한 가차의 밑 부

분과 지면의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경찰의

는 친구”라고 그를 칭하는 권재승씨는 “종철이

의 시신을 확인하려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종

철아, 알아~’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가 단순히

자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죽음에 많은 의혹 남아

‘민중의 빛’, ‘제보관’과 제종철 범대위 상

환실 부실장이었던 우리 열에 없다. 그의 생

일이기도 한 11월 20일, 다른 이들과 두 세

배로 열심히 생을 살았기 때문에 35살의 젊은

생애를 마친 것일까. 그의 마지막 죽음은 순탄

하지 않았다. 그가 목숨을 다한 11월 20일, 그

가 오후 5시부터 미 24시간 알 촛불 집회를 진

행하고 동지들과 함께 식사를 끝내고 헤어진

것은 11시였다. 11시 14분에 부인에게 전화를

한 그가 11시 51분경 전선에서 쉼없는 잠으로

발견됐다. 약 1시간 정도 그의 행적이 묘연

한 것이다. 이어 경찰이 정화한 사건 규명도

아들 고인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언론에

이를 보도해 버렸다. 그는 부인과 일상적 통화

를 하고 마지막으로 만난 동지에게도 “내일 노

동자 학교에서 꼭 만나자”고 약속을 할 정도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 그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은 ‘의부 총격에 의한 흉부 대동맥 파열’

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

고, 웃어 찡찡 웃는 곳도, 또한 가차의 밑 부

분과 지면의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경찰의

는 친구”라고 그를 칭하는 권재승씨는 “종철이

의 시신을 확인하려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종

철아, 알아~’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가 단순히

자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죽음에 많은 의혹 남아

‘민중의 빛’, ‘제보관’과 제종철 범대위 상

환실 부실장이었던 우리 열에 없다. 그의 생

일이기도 한 11월 20일, 다른 이들과 두 세

배로 열심히 생을 살았기 때문에 35살의 젊은

생애를 마친 것일까. 그의 마지막 죽음은 순탄

하지 않았다. 그가 목숨을 다한 11월 20일, 그

가 오후 5시부터 미 24시간 알 촛불 집회를 진

행하고 동지들과 함께 식사를 끝내고 헤어진

것은 11시였다. 11시 14분에 부인에게 전화를

한 그가 11시 51분경 전선에서 쉼없는 잠으로

발견됐다. 약 1시간 정도 그의 행적이 묘연

한 것이다. 이어 경찰이 정화한 사건 규명도

아들 고인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언론에

이를 보도해 버렸다. 그는 부인과 일상적 통화

를 하고 마지막으로 만난 동지에게도 “내일 노

동자 학교에서 꼭 만나자”고 약속을 할 정도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 그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은 ‘의부 총격에 의한 흉부 대동맥 파열’

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

고, 웃어 찡찡 웃는 곳도, 또한 가차의 밑 부

분과 지면의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경찰의

는 친구”라고 그를 칭하는 권재승씨는 “종철이

의 시신을 확인하려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종

철아, 알아~’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가 단순히

자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고인의 죽음에 많은 의혹 남아

‘민중의 빛’, ‘제보관’과 제종철 범대위 상

환실 부실장이었던 우리 열에 없다. 그의 생

일이기도 한 11월 20일, 다른 이들과 두 세

배로 열심히 생을 살았기 때문에 35살의 젊은

생애를 마친 것일까. 그의 마지막 죽음은 순탄

하지 않았다. 그가 목숨을 다한 11월 20일, 그

가 오후 5시부터 미 24시간 알 촛불 집회를 진

행하고 동지들과 함께 식사를 끝내고 헤어진

것은 11시였다. 11시 14분에 부인에게 전화를

한 그가 11시 51분경 전선에서 쉼없는 잠으로

발견됐다. 약 1시간 정도 그의 행적이 묘연

한 것이다. 이어 경찰이 정화한 사건 규명도

아들 고인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언론에</

신개념 블로그문화 현상진단

치근야, 싸이하자~



김신호(서양·영어 00)군은 "자기 PR시대인 지금, 싸이월드든 이러한 경향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칼럼, 서평, 영화평 등 자기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인 미디어'로의 역할을 하고있는 셈이다. 김수영(법·법학 02)양은 "전문가의 글을 읽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록 아마추어이지만 글과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며 과거에 비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제로 사이클드를 살펴보면 '세계최강소심쟁이', '미망' 등과 같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일촌 이름을 읽다.

카페, 커뮤니티보단 내 공간이 우선!

김수현(법·법학 02)은 “까페보다는 개인 홈페이지에 글을 우선적으로 남기기 때문에 까페나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요즘 각종 모임·단체들의 커뮤니티들이 점차 불로와 매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지호(정보산업공·전자정보공학 03)은 “내 공간이나 만큼 한방이라도 더 들어가 보고, 글도 하나라도 더 올리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까페나 커뮤니티보다 자기 공간이 우선시 되는 현상을 설명했다.

개성 표출하는 개인이 모여 만드는 또 하나의 우리
김 양은 “아이들부터 비롯한 블로그 매체는 개개인에 초점을 맞춘 형태지만 이것이 개인만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문화의 하나다”며 오로지 개인의 개성을 표출하는 작가공간을 통해 사람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의 개성과 목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한 블로그 매체, 여러분도 블로그의 세계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박승열 기자 park984@hanmail.net

찍어사진! 그리고 올려

많은 사용자들은 블로그 매체의 여러 기능 중 사진인식 기능을 보는 것이 가장 재미있다고 말한다. 유경애(서양·노어·노어3)장은 "사진을 통해 내 생활 가운데서 부분도 더욱 즐겁게 보아줄 수 있는 점이 좋다"고 말했다. 이는 특히 카메라에 부착된 디지털 카메라의 열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전영희(동양·노어 03)장은 "제이월드를 하고 난 후부터 디지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며 블로그를 위한 디지털에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다.

흥취보는 재미(?)

다른 이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점도 블로그 매체의 큰 특징이다. 블로그가능(타인의 블로그 매체와 연결시켜주는 블로그 매체의 기본적 특성)을 통해 알지 못했던 사람의 미니홈피도 가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보람양은 “이름만 클릭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쉽게 알 수 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훑어보기의 재미가 있다”고 말한다.

특별한 나만의 일촌
이름을 지어

주세요
 '일촌' (관계맺
 기에 동의한 사
 람)에 대해 유경혜
 (서양·노어 03)는
 "일촌이라는 단
 어가 친근감을 준다"
 며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나타내
 주는 단어"라고 전했
 다. 설현주(동학·아랍
 어 14)장은 "일촌 이름
 에는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특징과 동시
 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만들기 쉬운 1인 미디어

블로그 매체의 인기의 비결은 뭘까? 김 양은 “손쉽게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미 일정한 틀이 있어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故 세종철 동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효순이·미선이의 죽음에
국민들의 눈과 귀를 모았던 그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원인모를 안타까운 죽음 앞에
이제 우리가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흥부네 박 터진 흥겨운 날

하안천의 세트장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떡을 나눠주는 공연장의 첫 모습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한해의 끝자락인 지난 27일(목) 용인배움터 학생회관 지하 무용실에서는 민족악과 탈과 마당극과 한판이 준비한 마당극인 마당꾼이 열렸다. 마당극의 특징적인 무대 석과 판소리꾼이 구분없는 공연자라는 학생들이 뿔 털러 아 락을 먹으며 공연시작을 기뻐했다. 장소가 공연장에 옮겨 퍼져자, 장난개 남치는 얼굴을 가진 한 선비가 등장해 관객들에게 “너희들은 어서에서 온가?”라며 묻는다. 재치있는 그의 말투와 몸짓에 관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공연의 주요 인물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해

동화책에 나오는 가난한 흥부가 남밭갈 때 갑부로 변해
가세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때 복귀골에서 남밭갈
을 밟았던 놀부의 아들 몽룡이 흥부에게 도움을 요청하
기 때문일까 생각해본다. 반면 복귀골이 남밭갈을 노리고
있다면 흥부를 위협하면서 등장한 변사도, 흥부는 그에게
거액의 방위판돈을 건넨대다. 이는 지금 남과북,
미국의 관계를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
이다. 흥부의 부인은 일개가 등장하고

그의 발 출항이는 관측중 한사람이 즉석에서 뽑으면서
공언전 분리하기는 더욱더 흥미 진지해진다. 국이 바뀌고
경쟁도와 함께 정서적 차이 그리고는 통일보다는 경쟁
점을 치면서 마당공을 통해 사치하고 하는 우리사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수입개방과 물러 올
것아! WTO는 해라", "남북교류는 남과 남과 나
누이 지역강화를 이용해야", "러리는 중국과 반
동한 치고있고 나"는 대내에서 살 수 있는 현실 공론은
사회적 문제를 무뎌질 없고 이해하기 쉽게 다룬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결국은 한 가족임을 깨닫고 함께 막
을 터라 느끼는 정서들은 우리민들이 통일하고 그 만큼
그려져 있다.

박은희 기자
eunhi6@hanmail.net



온통 까맣다. 무대 세트도 배우들의 무거운 표정도 배경음악도 모든 것들이 까맣다. 지난해 27. 28일(금) 일요일 서울배우터 대학원 지하(6001)에서 열렸던 외대 연극회 아홉 번째 소극장 공연 '오해(L' Maitrise)'의 첫인상이다. 알베르 까뮈의 작품 '오해'를 원작으로 한 이번 공연은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웠

어머니와 그녀의 딸 미르라는 한지 모를 혼란한 분위기
가 흐르는 유럽 어느 한 마을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사
유지라고 한다. 이 여인들은 서양의 진정한 화가들
이었던 동양도량유학을 삼킨 듯한 인물인 카미오
호 한 아녀와 함께 살고 있다. 뜨거운 사랑과 혼란
바탕이 되는 곳으로 떠나고픈 지독한 욕망을 지닌 미르
다. 남보다 지성이, 눈빛이 다른 말을 변화하는 어머니
이 두 모녀는 자식지국인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 아
숙을 찾아온 이들 삼행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안
될 적 두 모녀를 두고 만나는 미르의 모습, 즉 어머니
아들이다. 그녀가 두 모녀는 그것을 모르고 결국 안
해한다. 어머니는 자식인 모습으로 이를 안고 죽
고 싶었던 모자를 되찾고 만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

을 죽였으
나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다
한 셈이지'라고 말하며 죽음을 택했다. 자신을 버려두고
간 오빠 때문에 아비의 사망까지 빼앗겼다고 생각한
미르라는 '알고도 모르는 오빠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없다'고 하고 말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한편, 한을 잊
어온 그 오빠 미르가 미르에게 미르라는 '내가 오빠를
죽인 데에는 '오빠'가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살이를 조금
더 잘 안다면 별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까요?'라
고 차갑게 말한다. 절절한 미러라는 무릎을 꿇고 "저를
도운다고 말해주세요"라고 하려는 기도한다. 쿠키 어
두운 아이들은 무신교 이념계 말한다.

"아이들"

조혜원 기자
mutate84@hanmail.net

— 학회를 찾아서 9 —

육이배웃더 중국어과 자전거 여행화회 '마리행'

세상 끝까지 달려라!!

“만리행 여행은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선물해요”라고 만리행 학회장 문치환(동학·중국어 1)은 국을 적한다.

만리의 길을 가며 만 편의 책을 읽는다'라는 뜻으로 가진 자전적 중국여행 회화 '만리행', 그들의 4차 정기 발표회가 지난 26, 27일(목) 양일 간 양 배움터에서 각각 열렸다. '서부개발지역 대 탐사'이라는 주제로 이번 4차 원정을 떠났던 그들은 한달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서부개발지역의 주요도시들을 여행하고 그곳을 문학과 경제 중심으로 살펴보았다고 한다.

“자전거 케달을 밟으며 중국을 여행하는 것 보다 실제로 그것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라는 문 군은 1화기 동안 중국의 역사, 지리, 문화, 언어 등을 함께 학습하며 전반적인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한계박학기기를 이용해 자

거를 타고 중국을 여행하면서 그동안 함께 공부했던 것을 직접 보고, 현지 인들과 바로 대화하는 등 일종의 생생한 현장 학습을 한다. 그 후 2학기에는 원정을 마치고 돌아와 그들의 활동을 정리한 인성 발표회를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인성에 대해 알리고, 그때의 생생한 느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2000년 학회 창간 이후 그 동안 중국어와 소속으로 활동 해온 만리행이 올해 학회차원이 아닌 동아리로 독립했다. 이에 회장 문 군은 “중국어와 학생뿐만 아니라 전학생들과 함께 하는 자존감 여왕. 또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떠나는 좀 더 폭 넓어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반리행의 4차 원정 성공을 축하하며 동아리로 승
격된 그들의 앞으로 활동을 기대해본다.

박은희 기자 peh1206@hanmail.net

